

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19. 12. 2.
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동구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립미술관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조)
- 나. 상설전 및 소장품 기획전은 무료로 하되, 기획전 및 특별전은 전시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성동구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음(안 제6조)
- 다. 구립미술관의 전문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10조)
- 라.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소장작품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사항을 정하고,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한 후,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함.(안 제11조)

- 마.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(안 제12조)
- 바.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성동구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둠(안 제23조~제28조)
- 사. 각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3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9. 10. 8. ~ 10. 2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개선의견 미반영
 - 개선의견
 - 위원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필요
 - 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 필요
 - 미반영 사유
 - 제척·회피 등의 규정은 준사법적인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, 운영위원회는 단순자문위원회로서 우리 구 여건 및 타구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반영.
 - 수당 관련 대상 및 범위가 명시되어 미반영.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성동구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32조 시행규칙까지 3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-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운영 시설에 대하여 기술하였고
-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미술관 개관 및 휴관, 관람 시간, 관람료 등 미술관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
- 안 제10조에서는 미술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- 안 제11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소장품 구입·관리·이용·대여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
-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대관 허가 및 허가 제한,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23조에서 안 제31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, 소장작 품추천위원회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- 성동구립미술관은 전시시설이 없는 왕십리 일대 전시공간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꾀하려는 구립미술관 기부 채납 계획(제247회 임시회,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)에 따라 2022년 6월 설치 예정으로

- 본 제정안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의2(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)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앞두고 미술관 관람·운영, 소장품의 구입·관리, 대관, 운영위원회 설치 등 향후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에도 미술관 운영 관련하여 구민이 알기 쉽도록 본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대관료, 사용기간, 허가 취소 등 대관 관련 사항은 미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
- 미술관 설치와 관련하여 전시실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와 용도 등이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술관 운영에 관한 제도를 앞서 규정함에 따른 한계점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, 추후 제도적 보완 사항 발생시에는 적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미술관 설치가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구의 문화예술 진흥 도모는 물론 성동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